社 說

미완의 혁명, 민족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 새정부하에서 4·19를 맞으며

올해로 4·19가 33주년을 맞이한다.

연재부터인가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 불러왔다. 미완의 혁명의 의미는 아직도 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완성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민족사적 과업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이루어진 4·19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당시로 볼 때 일단은 성공을 한 의로운 거사였다.

그러나 아직도 4·19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민족사적 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4·19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18선거로 우리 헌정에서 민간인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부르는 김영삼 대통령의 등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의피만 둘러썼지 '그놈이 그 놈이다'라는 식으로 현 정부를 평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평가하는 것은 속된 일일듯 싶다.

미국은 군출신 인사를 앞세워선 더이상 대리통치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 역사과정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군출신 인사가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정치적 각성의 과정은 바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옛 선배투사들의 지난한 항일투쟁부터, 지금의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 딸을 강간하고 죽여기까지 하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외세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반미자주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4·19는 학원자유, 공명선거, 민주적 개헌등 한정된 자유민주주의적 목표를 지닌 외거였으나 30여년이 지난 9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당시의 그러한 문제는 아직도 달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들의 민족사적 과제는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4·19이지만 군부정권하에서 맞이했던 지난 서른 두번의 4·19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4·19로 인해 5·16군사 쿠테타가 가능해 졌고 그로인해 군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정권하에서 새롭게 4·19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 경희인들은 변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계속되는 미완의 혁명 4·19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자. 우리들의 삶은 분명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현실

— 등록금협상을 보며

올해도 여전히 각 대학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교육재정확보투쟁의 앙상으로 치닫고 있는 등록금협상이 왜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마저 든다.

지금의 상황은 원칙적인 협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학생 모두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 교육시설비 증가등으로 18%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상률조정협상은 절대불가라는 학교측 입장과 일방적인 등록금인상률 통보가 아닌 교육의 책임주체인 정부, 재단, 학생 삼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맞서 한달 보름여동안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 믿음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측의 고자세, 학생측의 원칙론 고수가 이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먼저 입장 표명하기를 꺼리고 있다. 학교측은 왜 재단전입금 확충이 어렵고, 여타 재단 재정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등록금인상률이 왜 18%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학생측에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후에 학생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장단기 발전 계획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회 또한 명분을 앞세운 원칙론 고수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오늘날 사학의 여건을 고려해 볼때 교육재정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교와의 협상에서만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학교측 등록금인상률 제시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이후에 그 부당함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현실에 대해 아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능동적인 자세들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측의 공개행정이 선행되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학생회는 교재투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있었고 참여의 폭을 열어두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평가를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1만학우의 뜻과 힘을 결집한 결정체가 우리의 교재투로 표현되고 있다'는 자족감에 만족하기 이전에 당면한 등록금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 표면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등록금협상에 귀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고려해볼 문제이다. 주변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음을 아직 한번 상기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다른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한다.

광고

매체비평

반짝인기에 모델료는 껑충

'1억 어떠세요?' '저번에 1억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억2천쯤은 받아야죠!'

부수 아파트값이나 땅값 이야기가 아니다. 또 저 먼 2천년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CF모델료 이야기이다. 요즘 광고현장에서 모델료에 관한한 1백만원 단위가 거의 사라졌다는 말이다. 임 액수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임을 열면 1천만원이요, 1억원이다. '시간이 없어서 CF 못찍겠다'는 특급 모델은 물론이거니와 처음 CF에 얼굴을 드러내는 모델까지 이렇다. 딱말로 요즘은 CF가 최고의 돈벌이며 '봉'인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몇가지만 살펴보자.

요즘 TV-CF를 보노라면 겹치기 출연이 예사다. 과자를 들고나와 영거주춤을 추던 가수 H가 잠시후면 학생용 가방을 들고 나온다. 당대 최고의 인기모델 C양의 경우 가구, 비타민제, 삼푸 등 여러CF에서 종횡무진이다.

A사도 B사도 이 바닥 말로 '떴다~'하는 인기모델을 찾으니 희소가치 때문에 몸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인기모델을 쓴다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인기모델의 이미지에 제품을 얹어가는 이른바 '빅모델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수다하기 때문이다. 또 참신한 모델의 부재, 광고주의 요구, 점점 짧아지는 제품의 수명 등 광고제작자들의 모델 선택의 폭을 좁히는 환경도 알고 있다. 다만 제품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같은 모델을 중복해서 기용함으로써 모델료는 덩없이 오르고, 그에 비해 광고효과는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일부 모델들의 잣대없는 연기의식과 이에 비례한 모델료 요구이다. 일부 가수는 노래 하나가 저자거리에서 흥얼거린다 싶으면 수년간 일을 해온 배테랑급 모델보다 더 높은 모델료를 요구한다. 일부 탤런트나 개그맨은 출연중인 프로그램이 신문에 오르내리면 앞뒤 분간을 잘 못한다. '인기도 한때 아니냐'는 그네들의 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그렇다면 최소한 모델료 무게만큼의 노력은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성실하고 진지한 모델들도 많지만, 제값을 못하는 모델들도 제법 있는 것같아 하는 말이다.

어눌한 말투며 어색하기 짝이없는 표정연기 등이 눈에 거슬린다. 실제로 CF제작현장에 나가보면 불성실한 자세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연속극 대사를 들고 반새 연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았지만 CF대본을 들고 그 반의 반이나마 연습했다는 모델의 이야기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라면 조금 더 프로다운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공무원 월급은 동결되고, 기업은 한자리로 임금 인상률을 억제한단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유로 늘어 CF모델료 부문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황당한 궤변이 될까. 어쨌든 더이상 '인기탤런트 모씨, CF모델료 1억5천 돌파!' 따위의 기사가 스포츠신문에 오르내리고 호사가들의 입방아 주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장 승 익

(대흥기획 광고제작부)

'조건없는 전원복직'만이 해결점

사론

정부와 대화에 임하는 전교조의 입장과 이후 활동

정부의 대화의지, 일단 환영

4월8일 전교조대표와 교육부 장관의 공식대화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교육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교사의 바램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계기로 지난 시대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개혁과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남 그 자체를 뛰어넘는 내용상의 진전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은 개혁의 진정한 출발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여전히 '전교조해체와 탈퇴'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형사처벌자와 파면자를 배제'하려는 선별 움직임을 보이거나 '대국민사과'를 운운하고 있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새정부가 문민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군사정권과는 다른 모습과 자세로 전교조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며 교육부는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다수 교사와 국민이 요구하는 전교조합법화와 해직교사복직을 유독 교육부가 일부 사학재단, 한국교총, 교장단등의 반대를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4월8일 교육부장관과의 첫번째 공식회동에서는 획기적인 내용상의 진전이 없었으나 정부당국이 보다 전향적인 방침을 마련하여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전교조 합법위한 법령 개정해야

해직기간 경력인정·당시 학교로 복직추진

전교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직교사복직은 아무런 조건과 선별없이 일괄 원상복직되어야 한다.

전교조해체나 탈퇴각서를 요구한다든지, 형사처벌자와 파면자를 제외하는 등의 단계적인 조건부 선별복직은 새정부의 개혁과 화합의지를 현저히 퇴색시키고 대화자체를 어렵게 하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형사처벌자와 파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즉각 시행되고, 공사립 구별없이 1천7백여 해직교사복직은 6공 실정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합법화이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학재단은 1989년 당시 당국의 압력으로 교사들을 해직시킨바 있는데 이제와서 사학재단의 반대를 이유로 사람교원의 복직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다 해직된 교사, 사학비리를 시정하려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재단의 자의적인 재임용탈락조치로 해직된 교수, 기타 사회민주화관련 해직교원, 전교조결성이후 강화된 보안심사에 걸려 임용에서 제외된 학생운동출신 예비교사들도 빠짐없이 복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직교원복직에 필요한 제반 실무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6월부터 1천7백여 해직교원이 모두 교단에 서야 한다. 더이상 지체됨이 없이 신속한 실무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 1일부터 모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서둘러야 한다.

해직교사복직은 단순한 생존권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개혁과 지난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차원에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는 지난 4년여의 기간동안 권력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사수하고 각종 정계에 대응하는 투쟁에 다소 많은 역량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보다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는 참교육 실천사업과 교원의 이해와 요구를 증진시키는 교권옹호사업, 교육여건개선 활동등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으나 이제 이러한 교원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교사교육운동의 대중화와 참교육실천의 생활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민족민주운동에도 변화된 사회정치적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유지하고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개혁과 참교육실천활동을 바탕으로 사회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쉬지않고 달려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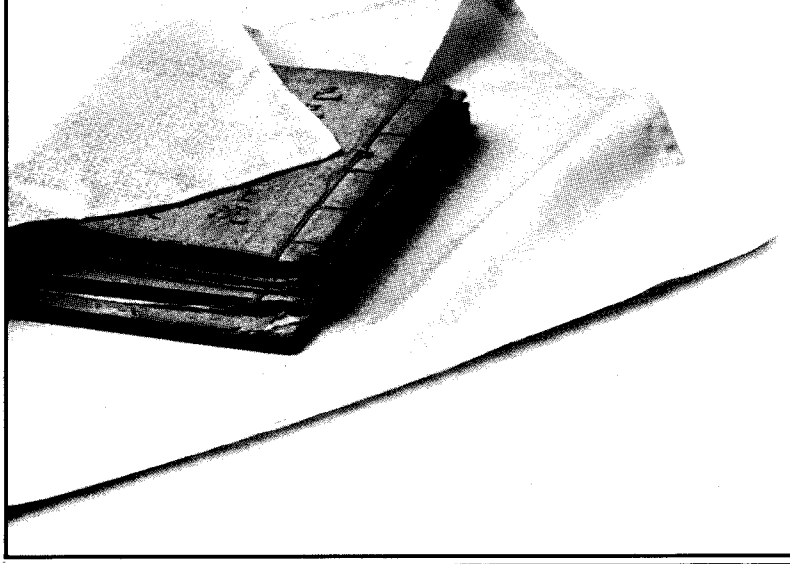
조 정 묵

(전교조 대변인)

(고) (황) (만) (평)

'부족한 걸 어떻해'

POSCO메세지 면학편



20대인 그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산

"지혜의 샘이 흐르는 진리의 탐구"
20대인 그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삶의 떡잎이 되는 지혜, 지식의 재산-
바로 지금이 그 최고의 재산을
가장 크게! 가장 알차게! 가장 왕성하게!
키우고 모을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